

□ 제6차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

1. 제6차 아시아건축사협회의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가 1994년 12월 12일, 13일 이틀간에 걸쳐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웨스틴 필리핀 프라자 호텔 세부회의실(Cebu Room)에서 열렸다. 15개 회원국중 13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참가국은 중국(ASC), 말레이시아(PAM), 타일랜드(ASA), 인디아(IA), 일본(JIA), 스리랑카(SLIA), 파키스탄(IAP), 대한민국(KIRA), 방글라데시(IAB), 홍콩(HKIK), 인도네시아(IAI), 싱가포르(SIA), 그리고 주최국인 필리핀(UAP)이었고 몽고(UMA)는 사실상 대표단이 왔으나 교육위원회 회의는 들어오지 않았고(언어 소통 때문에) 마카오는 교육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도착하였다.

그리고 UIA를 대표하여 히삼(Dato Dr. Hisham Albakri)씨가 첫 Session에 배석하여 UIA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위원회 조인숙 위원이 대표로 참석하였고 백경국 위원이 참관인으로 참석하였다.

제6차 아시아건축사대회(2)

The 6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ACA-6)

趙仁淑 + 白敬國 / 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by Cho In-Suk & Paek Kyeong-Kuk

2. 제6차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ACAE) 회의에서 토론된 주요 의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음과 같다.

- (1) 1994년 학생 잼보리대회 개최(Student's Jamboree)
- (2) 제1회 학생건축작품전(Student's Competition)
- (3) 아시아지역 건축학교 현황자료(Data On Asian Schools)
- (4) 각 회원국의 교육위원회 활동보고서 표준양식(Standard Format For...)
- (5) UIA와의 협력에 관한 토론(Cooperation with UIA)
- (6) 아시아건축사협회(ARCASIA)내의 건축학교 학장단 협의회 결성에 관한 제안
- (7) 회원국 상호간의 주요건축물 및 건축학과 방문 기회의 활성화
- (8) 건축사의 실무 훈련
- (9)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회고 및 미래의 목표
- (10) 차기 건축교육위원회 의장 및 간사국 선출

3. 각 의제별 토의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필리핀 건축사협회(UAP)는 마닐라에서 개최될 학생잼버리대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고했다. 학생잼보리대회에는 국외에서는 20명의 학생이 참가했고, 국내 필리핀학생은 80명이 참가를 하였다. 또한 학생잼보리대회에서 일어나는 활동사항과 준비내용 등을 기록 보관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는 일에 파키스탄(IAP) 및 필리핀(UAP)이 협력하여 기틀을 만들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김남훈 학생과 미국 Southern California 대학에 유학중인 김덕원 학생이 대회에 참가 하였다.
- (2) 제1회 학생작품전에서는 단 5개국에서만 참가를 하였다. 즉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대한민국이었다. 더 많은 학생을 참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품주제와 조건을 12개월 이전에 각 회원국에 미리 주어져야 한다는데 각 회원국은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므로 ACA주최국은 주제 및 조건을 1년전에 제출하여 ACA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JIA)은 특히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작품이 학생작품인 만큼 참가 학생들에게 참가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감동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도(IIA)는 각 회원국의 특유한 조건과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역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다. 학생작품전의 효율성을 위해 각 회원국 자체의 국내 건축전 주제와 조건이 아시아 건축학생작품전의 조건과 동일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우리측(KIRA)에서 전달하였다.

(필리핀 학생들 공동작품이 수장작으로 결정되었다)
 (3)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그동안 홍콩(HKIA)이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회원국의 건축목록 표준양식을 준비하였고, 이것을 우선 참고자료로 하여 보완하기로 했다.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회원국내의 건축학교 수가 최소 300개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각 회원국은 표준양식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의 내용을 기재하고 또 기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완성하여 1개월내에 의장 P. KASI에게 보내기로 했다. 참고로 중국(ASC)은 건축과 대학이 54개가 있고, 필리핀은 24개 대학이 있다고 한다.

(4) 1995년 이후부터는 회원국의 교육위원회(ACAE) 보고서는 표준양식을 이용하기로 하고 이것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건축교육위원회(ACAE)회의가 열리기 3개월전에 ACAE의장에게 보내도록 하여 그것을 근거로 회의개최전에 책자가 만들어져 배포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5) 이번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중요한 의제중 하나는 UIA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한 의견수렴이었다. UIA를 대표하여 Dr. Dato Hisham은 UIA가 전문인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실행위원회(Working Group)를 결성했음을 ACAE에 알려왔다. 그는 건축교육현장 제정에 관한 UIA보고서 및 건축교육에 관한 UIA 조사보고서를 준비했다는 것과 UIA가 건축교육에 관한 특별기구를 설립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UIA와의 협력에 대해 토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했다.

①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정보교환을 위해 UIA와 협력을 하고 또 건축교육과 전문인 훈련에 관한 UIA의 제도에 대해 고찰하는 것으로 한다.

②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건축교육에 대해 UIA가 건축교육현장 형식 작성을 하는데 있어 보조를 맞추도록 한다.

③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현의장 혹은 전(前)의장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를 대표하여 초대되었을 경우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건축교육에 관한 UIA소위원회나 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6) 필리핀(UAP)은 아시아의 건축학교 학장단을 참석 시킨 가운데 '아시아의 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이란 주제로 마닐라에 있는 필리핀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PICC)에서 12월 14일에 회의를 주재했다. 필리핀은 다른 회원국과 달리 벌써 건축 대학 학장단협의회(CODHASP)란 것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대학 상호간에 연락망 정보교환등을 위한 조직

을 구성하고 있었다.

건축교육위원회(ACAE)에서의 입장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에서 건축과 대학교학장단을 결성하는 것이 좋은 제안이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는 동의했으나 그것을 조직화하기 위한 조직 구성과 방법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토의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① 건축학교 학장단 회의는 건축교육위원회(ACAE)와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체제하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② 이런 기본방향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a. 조직망(Networking)

b. 건축학교들의 학사일정과 정보 수집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Data on Schools of Architecture, Curriculum)

c. 교수와 학생의 상호교류에 대한 협력

(Collaboration on Faculty and Student Exchange)

d. 연구협력(Research Collaboration)

이 제안에 대해서 건축교육위원회(ACAE)에서는 필리핀(UAP)이 대표가 되어 파키스탄(IAP), 중국(ASC), 일본(JIA), 인도네시아(IAI), 방글라데시(IAB), 스리랑카(SLIA)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 보완을 하면서 교육위원회(ACAE) 의장에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7) 인도(IIA)는 각 회원국의 건축사들이 상호 방문하는 계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 인도(IIA)는 이것에 관한 간단한 보고서를 준비하기로 했다.

(8) 싱가포르(SIA)에서는 건축과 졸업생들에게 졸업 후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것을 접하게 되는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건축사 교육훈련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의하였다. 각 지역의 간사국은 싱가포르(SIA)에서 마련한 틀에 맞추어 미리 각 지역내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위원회 회의시 보고하기로 했다.

(9) 건축교육위원회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와 ABAE의 역사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1986년이래 정식 건축교육위원회(ACAE)로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온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었다고 부연했다.

그 동안 한 일은 다음과 같다.

① 각 회원국간의 건축교육에 관한 정보교환

② 학생잼보리 주최(올해로 다섯번째)

③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주최 국제학생 작품전 시작

④ 각 회원국의 건축학교 기초자료의 조사로 데이타베이스 구축

⑤ 건축교육에 관한 책자 출판

건축교육위원회(ACAE)는 미래지향적인 효과를 위해 건축교육위원회를 다음 3분야에 역점을 두기로 제의했다.

| 분 야 | 구 성 |
|----------------------------------|--|
| a. 건축교육분야 (학교에서의 교육) | - 건축학교 학장단 협의회 - 학생캠버리대회 - 학생건축작품전 |
| b. 전문화된 훈련과 개발 (졸업한 후의 교육) | - 건축교육위원회 |
| c. 지속적인 전문화의 개발 (건축사로 등록한 이후) | - 건축교육위원회 |

앞으로는 건축교육위원회(ACAE)를 위의 b,c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는데 중점을 두었다. (10) 다음 1995~6년 건축교육위원회(ACAE)의 의장에는 스리랑카(SLIA) Lakshman Alwis씨가 추대되었다. 그리고 지역별 간사국으로는 남아시아 지역은 방글라데시(IAB), 동남아시아 지역은 싱가포르(SIA), 동아시아지역은 대한민국(KIRA)이 봉사하기로 했다. (11) 그동안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온 의장 피카시(PKasi)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시했고 그가 임기를 마쳤지만 자문으로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했으며 임기가 끝났다고 회의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요청했다. 임기가 끝난 의장 역시 차후 회의를 대비하여 지침서나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 주는 등 계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주최국인 필리핀(UAA)에게 교육위원회 및 캠버리대회, 무엇보다도 아시아지역 건축학교 학장단회의를 열게 해 준 점에 감사했고, 학생건축상을 주재해 준 점에 대해 올란다 교수(Yolanda) 및 조교 빅토리아노(Victoriano)에게 특별히 감사했다.

□ 아시아 건축대학 학장단 회의

(주제:아시아 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

12월14일 필리핀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장단 회의에 필자는 교육자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ACAE주최측의 특별배려로 KIRA를 대표하여 참관인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필리핀(UAP)에서는 이미 건축대학 학장단 모임(CODHASP)이 있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ACAE참가국의 교수진들이 모여 “아시아건축대학의 조직망 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주제발표 및 각 주제별 분과토의를 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대학 학장단 협의회(CODHASIA)결성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의례에 이어 필리핀의 산토토마스 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인 올란다 레이스(Yolanda D.Reyes)의 이 모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네차례의 주제발표 및 각 주제별 분과토의로 열기를 떠우다 보니 아침 8시 30분에 시작한 회의는 예정시간보다 한시간이나 지나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ACAE보고서에 이미 언급하였지만 이 모임의 주요목적은

- 1)조직망 구축
- 2)건축대학들의 자료수집
- 3)교수 및 학생들간의 교류 및 협력
- 4)연구협력 등을 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다.

주제발표(Paper Presentations)중 중요한 부분들만 소

개를 한다.

1. 교수 및 학생들의 교환제도(Exchange Programs for Faculty & Students)

서울포럼 김진에 박사의 책에 소개되어 국내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전 MIT대학 교수였던 터너 리(Tunney F.Le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kong)는 교환제도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관심사가 같아야 한다는데 역점을 두었다.

○ 첫째는 방법론으로 어떤 종류의 교환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 학생교환
 - 캠퍼스 밖에서의 특별프로그램(예, 지역간의 교류, 도시와 지방의 교류, 해외 교류 등) - 캠퍼스안의 특별프로그램(계절 워크샵)
 -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을 위한 진학 프로그램
- 교수교환
 - 1대1로 교환하여 같은 과목을 지도하는 방법
 - 참관인 자격으로 강의 견학
 - 공동 또는 협동 및 비교 연구

○ 둘째 목적과 결과가 분명해야만 한다

-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알리고
- 특별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 조직 및 공동체 수립
- 지도방법의 교환
- 연구등에 있어 분명한 목적과 확실한 결과만이 성공의 길이다.

○ 마지막으로 교환제도 수립에 앞서 몇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들은

- 숫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년간 몇명 또는 특별기간에 몇명)
- 몇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어떤 과정을 택할 것인가?
- 참가하려면 어떤 학문적인 성과가 필요한가?
- 언어는 무엇으로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유창해야 하는가?
- 기간은 한학기 또는 1년으로 할 것인가?
- 학사일정의 상충은 어떻게 해결한 것인가?
- 숙소문제
- 학생들의 등록금
- 기타 경비(여행, 식비, 교재, 공과금, 의료보험 등)
- 학생이 대상국의 문화등을 적용하는 것을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 학년진급은 인정할 것인가? 등이다.

2. 건축과 교수진의 역량개발의 문제점(Faculty Development)

아우구스티누스 다르마완(Augustinus M.S.Darmawan/ Soegijapranata Catholic University, Indonesia)

다르마완 교수(Vice Rector)는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 교수진들의 역량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연구 발표하였다.

- 첫째, 승급의 문제점에 대해(Promotion Problems)
 - 연구
 - 선생(Lecturer)들이 연구보다 가르치는데 치중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연구성과가 부족하여 교수(Professor)가 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뿐 아니라 연구능력이 점점 저하된다. 이는 정부조차 건축설계 분야를 연구분야라고 생각지 않는데에도 원인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 지역사회봉사

대학에서 마련한 일을 수행하므로 승급요건중 하나인 지역사회봉사가 가능한데 현실적인 면에서 볼때 그런 프로젝트를 해 보아야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안된다. 한편 대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캠퍼스밖에서 지역사회에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이 경우에는 승급요건에 해당이 안된다. 건축이 응용학문이므로 교수들은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 자칫 교수들이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게 된다.

• 봉급 및 연구비

봉급이 낮고 연구비 또한 충분하지 않으니 가르치는데 충실하지 못하게 되며 자꾸 밖에서 일을 하려고 하게 된다

• 과중한 행정업무

강의외에 Vice Rector라든지, 학과장 등등의 행정업무에 매달라다보니 가르치는데 전념하기가 어렵다.

○ 두번째:건축과 내에서의 승급에 관하여

다르마완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건축학과에는 전임이상이 36명(정교수 1명(Professor), 교수 8명(Lecturer), 조교수 27명(Assistants), 시간강사가 60명 재직하고 있으며, 교수들의 90%는 밖에서 일을 하고 규칙에는 전임이 된후 2년이상 되면 승급이 가능하나 사실상 교수들의 50% 정도가 3년이상 되어야 간신히 승급이 되며 30%정도는 6년 이상이나 적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승급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따른다.

○ 마지막으로 교수역량 개발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실무훈련이라든지 연구비 보조, 타대학과의 협동, 외국어교육, 정기적인 모임, 그리고 특별사상제도등의 대학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과 교환교수제, 연구, 저술, 강연회, 학생작품 품평회 그리고 분야별 연구강의 등의 건축학과 차원에서의 프로그램들의 예를 들었다.

승급하는데 필요한 점수에 이들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학위가 중요하며, 강의외에 저술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3.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조직망(SA Search Network)

카우살 바쉬르 아마드(Prof Kausar Bashir Ahmad NED-DCET Karachi, Pakistan) 이 주제는 파키스탄 라호르의 반달(Professor Vandal)학장이 아마드 학장을 대신하여 발표하였다. 실현가능한 조직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 내용들을 단계별로 접근한 연구조사 보고였다.

○ 첫째, 건축이라는 직업 및 건축교육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해... 이 내용은 "건축교육"이 주제이며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모로코에 이르기까지의 30개국 140학교를 대상으로 조직망 조사(networking survey)에 의거한 것인데. 연구자가 아가 카재단(The Aga Khan Trust for Culture, Geneva)에

발표했던 연구 조사보고서를 특별히 이번 학장모임용으로 발췌, 재편집한 것이라 했다.

○ 둘째, SA Search를 수립함으로써 정말 의미있는 관계를 맺기 위한 조직망 전략에 대한 제안 이는 뉴스레터, 교수교환, 학생여행장려금, 또는 저널(학생저널, 교수저널, 연구저널)등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 셋째,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건축교육 및 실무에 대한 case study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연구자가 ARCASIA 발표용 보고서를 만드는데 A지역 부의장이 재정지원을 한 것이었다.

4. 연구협력(Research Collaborations)에 대해

베냐민 타야바스(Dr. Benjamin Taybas, President, Higher Education Administration Manila, Philippines)의 발표가 있었다.

오후에는 각 발표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필자는 교환제도(Change Programs for Faculty & Students)를 주제로 하는 workshop에 참석하였다. 터니 리 교수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토의되었다. 이것이 실현가능해지려면 우선 각국의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며 언어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Design Studio교류를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경제상태가 전혀 다른 나라끼리 교환을 했을 때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토의되었고 토의가 끝난 후 각 그룹의 토의 내용을 발표했다.

조직망(Academic Networking)소그룹은 각국 건축학교의 자료 및 정보교환의 방법으로 우편이나 FAX, 또는 brochure교환 등을 제시했고 이들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일종의 잼버리형태의 기구를 만들 것을 제시했다.

연구협력(Research Collaboration)소그룹은 기금이 필요하다는 문제점과 장차의 전산망을 통한 연구협력 및 공동집필의 가능성 등의 토의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필자는 한국의 건축교육 현실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없었음이 매우 안타까웠었다.

우리 국제위원회내에 교수님이 위원으로 몇 분 계시지만 협회의 보조로 회의참석을 해야하니 어쩔 수 없이 회원이 대표할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부터 개업 건축사가 아니라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학장회의에 대비하여 우리 협회가 보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3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나마 참석할 수 있었기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회의 내용을 그나마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진짜 교육관계자가 참석하게 된다면 더 나은 교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